

## 가정행사의 사회화 정도와 이에 대한 세대간 인식 변화 비교

장 상 옥\* (경성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신 경 주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

본 연구는 가정생활 중 비일상적인 생활에 해당하는 가정행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가정행사의 사회화 정도와 이에 대한 세대간 인식 변화를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의 비일상적인 가사노동인 가정행사가 어느 정도 사회화될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에 의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가진 가정의 주부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추이를 파악하고자 시차를 두고 1992년과 2000년에 시행하였으며,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과 t-test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 일상적인 행사 계획 시 가사노동의 부담 계획 및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수행할 외부시설의 형태와 잠재적 수요를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행사의 사회화 경향을 보면 사회화되지 않은 행사는 전통행사와 탄생일 이었으며 사회화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행사는 인생의례, 축하행사, 기타 행사이었다. 가정행사를 수용하는 외부 장소는 식당, 호텔, 여행지, 카페, 패스트푸드점, 호프집 등이었다. 따라서 가정행사의 사회화에 대비한 행사를 수용할 시설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 2) 전통행사(구정, 추석, 대보름, 제사, 신정)는 주로 집(자기집, 친척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외부시설로의 사회화 경향은 시간의 경과에도 진전하지 않았다. 특히 반 정도의 가정이 두 번의 설(신정, 구정)을 집에서 지내고 있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요망되었다. 탄생일은 거의 집에서 이루어지나 근래 주부나 자녀의 생일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증가하여 사회화 가능성을 보였다.
- 3) 인생의례는 전반적으로 외부시설에서 거행하는 비율이 높아서 사회화 경향이 뚜렷하였다. 돌잔치와 환갑·고희 행사는 외부시설에서의 거행 비율이 계속 증가하므로 사회화된 행사로 보였다. 축하행사 중 집들이는 집에서, 자녀졸업과 입학행사는 외부시설에서 이루어졌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화가 더 진행되었다. 기념일 중 어버이날은 외부시설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어린이날은 주로 외부시설에서 거행하였다. 기타행사인 크리스마스는 외부시설로의 거행 비율이 증가하여 사회화될 행사로 전망되었다.
- 4) 가정행사에 대한 부모와 자녀세대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양 세대 모두 탄생일을 가장 중시하여 거행하고 싶다는 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인생의례, 축하행사, 기념일을 거행하고자 하는데 서양적이거나 핵가족 중심적인 행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5)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간의 가정행사 거행의식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전통적 행사, 인생의례, 탄생일, 기념일, 기타행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전통행사는 거행비율이 줄어들 것이며, 인생의례에서 부부 중심적인 젊은 세대의 행사가 중시될 것이며, 탄생일이 중요한 행사로 정착되며 서구에서 유입된 기타행사의 거행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